

구세관음상(아스카 시대 국보)

7 세기에 제작된 이 상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구세관음의 상으로 호류지 절의 보물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. 한 그루의 녹나무로 조각했으며 전신에 금박을 입혔습니다. 높이는 179cm 로 쇼토쿠 태자(574~622 년)의 등신상이라고 전해집니다. 태자에 대한 존경심으로 일반에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.

오랫동안 비공개 상태였다가 1884 년에 미국의 일본미술사가 어니스트 페놀로사(1853~1908 년)와 일본의 미술평론가 오카쿠라 덴신(1863~1913 년)이 호류지 절에 방문하여 승려들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상의 봉인을 풀었습니다. 현재는 매년 두 차례, 봄과 가을에 각각 약 한 달간 특별 공개됩니다.